

증시이끌 차세대 스타는? LG화학·모비스·SDS 등 주목

경기침체 이후 본격 회복되면
2등자리 경쟁기업 추가 매력적
LG화학·모비스 등 B2B에 주목

흔히 시가총액이나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을 1등주, 그 다음 순위 기업을 2등주라고 한다. 한국증시 부동의 '스트라이커'는 삼성전자다. 하지만 최근 주시시장에서 2등주와 3등주의 주가 반응을 보면 서로 앞지러가기 시작하며 시소계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라이징 스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성장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2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기업의 주가는 매력적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및 회복의 초기 국면에는 1등주가 강세를 나타낸다. 극도의 경기 침체 이후 회복 초기에는 수요가 제한된 상황이라서 절대 강자만이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2, 3등주가 우세해진다. 즉, 경기 침체 국면에는 업황의 악화 정도가 더 크고 경기 회복 국면에는 업황의 개선 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7년, 2011

(거래 고객 기업수가 늘어나면서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B2B 기업)

종목명	시가총액(조원)	시가총액 순위	매출증가율(% YoY)		연간 거래 고객 기업 수			
			2018년	2019년(E)	2018년		현재	
					전체(개)	해외 비중(%)	전체(개)	해외 비중(%)
LG화학	26.2	3	9.7	11.9	139	46.0	135	49.6
현대모비스	20.2	14	0.0	3.7	40	50.0	41	48.8
삼성에스디에스	17.6	19	7.9	9.4	52	15.4	51	15.7
현대중공업	9.2	34	-15.2	8.0	119	60.5	118	60.2
현대글로벌비스	4.8	63	3.1	4.7	38	13.2	38	13.2

(자료=Bloomberg,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년, 2017년은 공통적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또 이 시기에 시가총액 2등주의 순위 바뀜도 있었다.

2007년은 한국전력에서 POSCO로, 2011년 POSCO에서 현대차로, 2017년은 현대차에서 SK하이닉스로 순위가 달라졌다.

특히 POSCO와 SK하이닉스 같은 B2B 기업의 순위 바뀜에 시장은 주목한다. 두 기업은 모두 매출확장을 통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007~2008년 POSCO의 매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11%와 40%(같은 시기 코스피 10%와 24%)에 달했다. SK하이닉스의 2017~2018년 매출증가율은 각각 75%와

34%(코스피 10%와 -14%)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두 기업의 매출 확장은 거래 고객 기업 수 확대가 배경이었다. 2007년 POSCO의 거래 고객 기업 수는 18개에서 2009년 104개로 늘어났다. 2016년 SK하이닉스는 42개에서 2017년 58개로 증가했고, 특히 해외 거래 고객 기업 비중이 55%에서 70%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한국증시를 이끌 '알파'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은 "B2B 중 향후 시가총액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기업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거래

고객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다변화되면서 매출은 2018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POSCO와 SK하이닉스의 뒤를 이을 B2B기업으로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에스디에스, 현대중공업을 꼽았다.

현대차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B2C의 시가총액 순위 상승에도 이유는 있다. 바로 마진을 개선이다. 현대차의 2010~11년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8.8%에서 10.3%(코스피 7.5%→6.3%)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11.9%에서 16.2%(코스피 5.3%→6.0%)로 좋아졌다. 당시 현대

차의 글로벌 자동차시장 판매 비중은 7.8%에서 8.6%로 늘어났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78%에서 75%로 낮아졌다.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동종 기업 내에서 매출 비중은 7%에서 13%까지 높아졌고, 매출원가 비중은 30%에서 24%로 낮아졌다.

최근 KT&G, CJ제일제당, 힐라코리아, 스튜디오드래곤, 한국콜마 등의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

가격 모멘텀 측면에서는 어떨까. 1등주가 유리하다. 1등주의 2등주 대비 주가 반응을 보면 미지근한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선행지수가 꺾이면서 일시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이어서 성장 모멘텀보다는 가격 모멘텀에 더 관심이 가는 시기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2등주는 성장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1등주는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니 최종 승부는 밸류에이션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적정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에는 이익의 성장성과 변동성을 감안해야 한다. 성장성이 높으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변동성이 높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주총회 전자투표제
스타벅스 기프트콘 이벤트
3월 26일까지 선착순 300명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주총 전자투표제 이벤트

NH투자증권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 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에 탁월한 K-eVote에서 전자투표를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한 주주 중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모바일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전자투표 가능기간인 3월 26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 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일시 3월 20일(수) 오후 3시~5시
장소 한국투자증권 본사 5층 연수실

한국투자증권

내일 투자전략 세미나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5층 연수실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경제 전망 및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투자전략부 정현중 연구위원과 백찬규 수석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며, 첫번째 시간에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두번째 시간에 '투자전략 및 유망 종목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선착순 50명까지 무료 참석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로 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초기 벤처기업, 공정가치 아닌 原價평가 허용

금감원, 비상장주식 회계심사 추진
실적·투자기간·특성 고려해 평가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원가 평가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회계심사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치평가의 한계에 불구하고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심사방안은 감독지침의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된다.

금감원은 피투자기업의 실적 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평가하기로 했다.

먼저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로 인정해준다. 이에 대한 검토내역이나 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방침이다.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면 기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검토한다.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과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오류사

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을 권고해 적시에 정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나 실적을 내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단순 평가오류는 완화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나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을 원칙으로 한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요건 충족시 종과실로 판단하도록 해 종과실 판단 범위도 제한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

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고의 분석에 대해서는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며, 횡령·배임 등에 대해 중요성에 관계없이 특정금액 이상 위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신(新) 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감사인 간 담화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1@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증권사 한자리에

한양증권 바이오포럼 개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한양증권 바이오포럼(IPIR 2019-Season1)'에서 "한국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역할도 한층 더 확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오포럼은 파생신, 에이비엘바이오, 엠클론, 와이바이오로직스 등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시장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과 함께 제약·바이오 업계와 자본시장의 눈높이와 니

즈를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포럼에는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 관계자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창투사 애널리스트, 심사역 등 투자기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파생신은 완전인간 scFv 파아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HuPhage)를 통한 단일·이중·다중 항체치료제 파이프라인 구축 관련 원천기술을 소개하고, 현재 국내외에서 임상개발을 진행 중인 TTAC-0001 항체치료제에 대한 그 간의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항암제, ADC 및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쟁우위와 항



지난 15일 열린 '한양증권 바이오포럼(IPIR 2019-Season1)'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한양증권

후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한양증권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IR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3월 공동 바이오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격월로 총 5회에 걸쳐 우수 바이오 헬스케어 상장사와 비상장기업들을 이원화해 시장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25일 한양증권

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바이오헬스 산업 자본시장 연계 강화 및 유망 스타트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양증권은 최근 43년만에 CI를 변경하는 등 '강소 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김문호 기자